

미래교육체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OECD 전문가 전북 방문... 2030 학습틀로 본 한국 교육 분석

“교육감의 역할은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성장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2030 미래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OECD 전문가들이 전북을 방문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KEDI, KICE와 함께 격변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OECD에 Education 2030 학습틀을 활용한 한국 교육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OECD 전문가팀 4명이 16일부터 21일 까지 서울, 경기, 전북의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현장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19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완주 상관중을 방문해 수업 참관과 함께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과 그룹 면담을 가졌다.

이후 한국 교수학습, 평가, 교육과정

등이 학생(중등) 자기 주체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및 통계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과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교육 상황과 교육감으로서 전북지역 교육 향상을 위한 교육비전 설명 ▲교육의 본질이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생은 배우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의 구현 등이다.

한국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과정 과부하와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내용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위한 여유와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자발성에 대해 공감했다.

10월 23일 개최되는 ‘한-OECD 국제 교육포럼’ 개막 행사에 분석 초안을 발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2030 교육체제 수립의 참고 자료로



2030 미래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OECD 전문가들이 전북을 방문했다.

활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를 살아야 한다. 때문에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며 “OECD 전문가팀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을 들여다보고 미래교육 체제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제안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부터 30여개 국가들과 함께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틀을 논의해왔으며 2019년 ‘OECD Learning Compass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은성기자

“함께 떠나요, 굴절된 우리역사 바로보기 기행”

전주중, 역사탐방 교육 큰 호응

전주중학교(교장 이영송)에서는 올해 4월부터 교실 중심의 역사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굴절된 우리 역사 바로보기 기행’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회기 중 3회를 실시한 이 역사탐방은 교육가족의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오는 21일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 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 탐방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

야기를 들려주는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읽고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역사탐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 주관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 한 해 동안 진행되고 있는 ‘굴절된 우리 역사 바로보기 기행’은 전주중학교 학부모 독서동아리(우책동)와의 연계 활동으로 그 의미와 깊이를 더해 가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올바른 역사 의식을 교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은성기자

전북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평생교육기

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교육청 미래인재과로 전자 문서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을 확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도가 학력취득에 어려움이 있던 비문해자들에게 희망이 될 바라며 문해교육에 관심이 많은 기관과 단체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우간다 낙농 생산성 향상 위한 초청연수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오는 26일까지 우간다 낙농업 고위급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부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센터 김중기)는 올해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우간다 낙농기술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을 수행하며 우간대에 한국형 시범 낙농목장 설립 및 한국 젖소 유전자원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프리카 가축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하고 있다.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연수에는 우간다 안나 로즈 아데문(Dr. Ann Rose Ademun Okurut) 우간다 농림축산수산부 동물검역원장을 비롯해 윌리엄 바제요(Dr. William Bazayo) 마케레레대학교 부총장, 관련 학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등을 견학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강의 및 간담회에 참석한다.

또한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은 18일 ‘아프리카 국제협력사업 간담회’를 열어 한-아프리카 간 공동 연구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우간다 전문가들은 자국의 낙농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유전체 선발기술’을 도입하여 아프리카 소 품종 개량에 활용하기로 했다.

‘유전체 선발기술’은 2017년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개발한 가축 개량기술이다.

DNA칩에 저장한 가축의 유전정보를 통해 유전능력을 분석하여 우수한 개

체를 정확하게 선발하는 기술이다.

현재 국가단위 한우 보증서비스 선발에 사용되고 있으며, 암소, 종돈에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을 아프리카 소 품종에 활용할 경우 아프리카 축산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수는 전북대가 2016년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교내 연구로 개발한 축산기술과 한국산 우수 젖소 정액을 아프리카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태양전지 실용화에 한 걸음 다가서다

전북대 한운봉 교수팀, 태양전지용 복합소재 개발 태양전지 수명 크게 늘리면서 유해 용매 사용문제 극복

전북대학교 한운봉 교수팀(공대 화학공학부)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용 기능성 복합소재를 개발, 에너지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Nano Energy’ 최신호(vol. 64 (2019) 103964)에 게재돼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이러한 유해한 독성 유기용매 사용의 문제를 극복한 것. 구리와 산화니켈, 산화알루미늄, 탄소, 흑연 등을 페로브스카이트와 혼합하여 새로운 조합을 갖는 기능성 복합소재를 제조해 활성층과 전자수송층 및 계면층에 적용하고, 독성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antisolvent-free) 공정으로 대기 중에서 태양전지를 제조함으로써 안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다.

제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효율(18.6%)과 재현성이 우수했으며, 광학적, 열적, 수분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여 280일이 지나도 태양전지 효율이 94% 이상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운봉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서 태양전지를 실용화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선 연구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한운봉 교수와 왕유생 박사, 타미네 마흐모디 박사, 노원일 교수가 참여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 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왕유생 박사와 타미네 마흐모디 박사는 한 교수의 지도로 전북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은성기자

또한 결정립(crystal grain)이 크고 균일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성장시키기 위해 톨루엔과 클로로벤젠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데, 이런 용매들은 유해할 뿐만 아니라 태양전지의 안정성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용화를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다.

한 교수팀은 그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소재 제조와 계면공학 기술 등을 적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수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Nano Energy’ (IF=15.548)와 ‘ACS Energy Letters’ (IF=16.331)에 지난 2년간 5

전주비전대,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태권도대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오는 21일~22일 양일간 본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로 초·중·고·대학생 선수부터 실버 선수까지 개인품새 1, 2부, 페어 품새, 단체품새, 가족품새, 태권체조, 겨루기 1, 2부로 폭넓게 경기가 펼쳐진다. 총 1,331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과 야외 이벤트, 경품 추첨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한다.

이번 대회는 전주비전대학교와 전

라북도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전주비전대학교 체육부, 태권도체육학과가 주관한다.

김순정 교수(태권도체육학과)는 “공정하고 스포츠맨이 빛나는 대회는 물론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태권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체육학과는 현재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 1차 접수(9월 6일~9월 27일)중에 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